

# ‘귀농어귀촌’ 전남 인구 늘리기 성과

###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 인기 정책평가서 브랜드 대상 수상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서기 위해 전남도가 귀농어귀촌 인구를 혁신적으로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적용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남 농어촌에서 정착하려는 도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손꼽히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선정 귀농어귀촌 정책평가에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후원하며 매년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과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어귀촌 대표도시 부분’에서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광역단위 최초로 인구전담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2024년 인구청년인민국으로 승격하는 등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 도시민 대상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참가자 2497명 중 426명이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원사업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전국 귀농어귀촌 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대회’에서 인구 늘리기 부문 지자체 혁신 대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는 올해도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맞춤형 도시민 유치 활동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555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난 2020년 2월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개소한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 설명회와 상담, 교육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희경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예비 귀농어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가 발굴해 시행하는 등 생동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 GMP 교육



### 유틸리티 이론·품질관리 교육 등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지난달 26일까지 광주·전남 바이오 학과생 16명을 대상으로 3주간의 바이오의약품 GMP 교육을 진행했다.

이런 교육은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했으며, 센터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를 토대로 현장 실습시설을 활용해 수료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기준으로 설계됐으며, GMP 기초 교육, 밸리데이션 및 장비 검증, 제조소 이론 및 투어, 유틸리티(시설 관리) 이론 및 실습, 품질관리(QC) 교육 등이 커리큘럼에 포함됐다.

센터는 시장 조사를 위해 수료생 16명을 대상으로 구직, 교육에 대한 설문도 실시했다. 센터는 올해 말까지 1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2025년에는 교육·생활관 완공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 개최 기원 전남관광활성화협의회 출범

### 전남관광재단, 전문가 구성 정책 발굴·문제 해결 방안 등 논의

전남관광재단이 지난 2일 전남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협의회는 향후 전남 관광활성화와 ‘2024-2026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목포대 심원섭 교수,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전남대 박효연 교수, 전남연구원 박행구 연구위원, 강진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 광주대 안태기 교수, 경희사이버대 윤병국 교수,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영준 선임연구위원, 한국관광공사 김석 지역콘텐츠실장, 주식회사 여수와 하지수 대표, 청춘작당협동조합 민천양 대



표, 여가문화연구소 정희주 대표(한국관광공사 관광PD)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구성된 전남관광활성화협의회는 관광활성화 및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정책 및 현장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전남 관광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육성사업 공모

### 전남도, 13일까지 진행 5개소 선정 초기투자비 지원

전남도가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공모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육성을 위해 시설 투자비 및 홍보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사업별 지원 금액은 개소당 도비 3000만~5000만원이다.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2차 종합심사를

거쳐 5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신규 시장형사업단 창업을 준비하는 기관의 초기투자비 지원 ▲시장형사업단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관의 기능보강비 지원이다. 참여 가능한 나이는 60세 이상이다.

참여를 바라는 사·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자문서로 전남도 노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평권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지속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단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세계적 관광지 이끌 킬러 콘텐츠 발굴 나선다

### 여행 블로거 등 전문가와 간담회 신해양·관광수도 전남 실현 기대

전남도가 올해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전남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끌어 줄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 여행 파워 블로거, 유튜브 등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몇몇 콘텐츠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미래 글로벌 관광전남의 랜드마크를 구축할 광역관광 핵심 콘텐츠 사업 발굴을 위해 2024년 제1차 관광혁신 전문가 간담회

를 초청 정약용실에서 개최한데 이어 전국 단위 관광 전문가(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관광공사 등)와 여행 파워 블로거·유튜버 등을 구성해 관광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등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대응한 대형 관광프로젝트 발굴로 전남을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케이(K)-관광 휴양벨트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간담회에는 박창규 전남도립대 관광학과 교수, 임영구 전남수목비엔날레 위원장, 이진의 전남연구원 관광학 박사, 최재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한승훈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김미영 금양이엔씨 건축사, 박행구 전남도시재생지원

센터장, 정은성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광훈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교수 등 관광, 문화, 미술, 건축 분야 민·관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도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랜드마크 조성 등 미래 전남 관광을 선도할 핵심 콘텐츠 사업 발굴 및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남도의 유구한 전통, 역사, 인물과 함께 수려한 강, 산, 바다를 활용한 남해안 웰니스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융·복합해 고도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미래 교통수단과 사회간접자본(SOC) 변화에 따른 전남 섬관광 활성화, 하드웨어에 전남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을 입힌 융·복합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경진원, 누리집 메인화면 전면 개편

### 맞춤형 정보제공 편의성 강화 등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성희)이 이용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진원 누리집(https://www.jepa.kr/) 메인화면 등을 전면 개편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웹기반(PC, 모바일 버전) 누리집 디자인 전면 개편, 검색 엔진 업그레이드, 맞춤형 정보제공 편의성 강화 등이다.

특히 누리집에 ‘원스톱 사업안내’ 메뉴를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4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사업안내

라는 자료집을 제작해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자료집은 경진원에 입주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9개 기관(‘네이버스’)의 지원사업, 지원내용, 사업 신청방법 등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유튜브(https://www.youtube.com/@jeonnambiz)에 유관기관 통합 지원정책 설명회 동영상 자료를 게시하고, 책자로만 보기 어려웠던 안내 사항을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희 원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지원사업 정보제공에 있어 도민들과 더욱 손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